

무엇이 아테이고 예루살렘인가? 무엇이 아카데미이고 교회인가?:

테르툴리아누스의 글 *De praescriptione
haereticorum*을 중심으로!*

Was ist Athen und Jerusalem? Was Akademie und die Kirche?:
In der Schrift bei Tertullianus *De praescriptione haereticorum*!

조병하 (백석대학교/역사신학)



복음과 상황의 관계를 이원론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교와 유대교의 관계는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있고, 그리스도교와 헬라-로마 문화권과의 관계는 복음과 상황의 차원에서 살필 수 있다. 테르툴리아누스의 글에서 유래한 아테나와 예루살렘의 관계는 복음의 사도계승과 복음의 헬라철학과의 혼합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본 글은 테르툴리아누스의 글 『이단들의 항변에 대하여』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글의 논지는 당시 이단들이 제기한, 1) “사도들이 모든 것을 알지 못했다.” 2) “그들이 모든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모든 이들에게 전승하지는 않았다.”는 항변을 반박하고 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지식 욕이 철학으로부터 나누어질 수 없다고 보았다. 철학의 세상 지혜와 계시의 구원의 진리는 아테나와 예루살렘처럼, 그리고 이단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서처럼 대립한다. 진정한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

* 논문 접수일: 2011. 6. 10. 수정 접수일: 2011. 8. 27. 게재 확정일: 2011. 9. 3.

에게서 사도들에게로, 사도들에게서 이방인들(그리스도인들)에게 전승되었기 때문에 이 진리를 발견할 때까지만 찾는 것(지식욕)이 필요하지 않았을 때에는 즉시 믿어야 하고 믿은 다음에는 찾는 것이 필요없고 찾은 진리를 보존하는 일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주제어 : 복음, 상황, 예루살렘, 아덴, 신앙의 규범, 발렌티누스, 마르키온, 아펠렉스, 하나님의 구원계획, 지식욕, 사도계승

서 론

역사적으로 2세기 중엽에 이르러서는 이방인 중심의 그리스도교가 확고해 졌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으로 전락했든지 아니면 대부분 그리스도교를 떠났고 소수의 유대인만이 그리스도교의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었다.¹

사실 복음이나 상황의 문제는 우선적으로 유대교의 태에서 나와 헬라 문화권에서 발전한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율법과 할례의 갈등을 극복하고 복음으로 형성되었는지, 헬라사회 안에서 헬라사상을 어떻게 활용하고 극복하였는지의 사실을 살핌으로써 대답을 얻을 수 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심의 예루살렘 공동체와 유대인과 이방인이 공존하였던 안디옥 공동체와 바울의 선교여행을 통하여 세워진 공동체들 간의 율법과 복음에 대한 태도²는 복음과 상황에 대한 문제에 대한 처음교회의 대답을 얻게 만든다.³

¹ 아돌프 마르틴 리터, 『고대그리스도교의 역사』, 조병하 역 (서울: 기독교문사, 2007(수정보완판)), 24, 36, 126-31.

² 리터, 『고대그리스도교의 역사』, 23-31.

³ 제1차 사도바울의 선교여행 후 안디옥교회의 요청으로 상정된 이러한 문제는 예루살렘 사도회의(약 48년경)에서 결론을 얻게 된다(행 15장 1절-35절). 잘 알려진 대로 선교경지의 정리 즉, 예루살렘교회는 유대인 선교를, 안디옥교회는 이방인 선교를 맡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유대교로부터 분리된 그리스도교는 이제 복음의 선포와 헬라문화(혹은, 복음이 전래되는 각종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상황)이 어떻게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증거 되기 위하여 철학(세상학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의 질문에 봉착하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이를 잘 증거 해 주는 자료 중 하나가 테르툴리아누스의 글들이다. 그의 글들 중 남아 있는 37권의 하나인 『이단들의 항변에 대하여』(*de praescriptione haereticorum*)가 정답처럼 꼭 맞는 글이다. 이단들의 항변에 반박하면서 해결의 축으로 “따라서, 무엇이 아테네로부터 있고 무엇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있는가? 무엇이 아카데미부터 있고 무엇이 교회로부터 있는가? 무엇이 이단들 통하여 있고 무엇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있는가?”⁴라는 논지를 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교가 이교문화의 만남에서 일어났던 충돌과 해법을 깊이 연구하고자 한다.

1. 테르툴리아누스와 오늘의 연구

19세기에서 20세기로의 전환기에 활발하게 교부학이 연구되었었고(아돌프 폰 하르낙, 테오도르 쾰, 오토 바르덴헤베르 등), 그들의 연구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다가 1970년대 말부터 새롭게 4세기 삼위일체 논쟁사를 시작으로 하여, 그 밖에 교부들 전반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해 저 역사기술에 많은 수정들을 가져왔다.⁵ 또한 학회 활동에 있어서도,

예루살렘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기부금을 요청하였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과 할례가 아니라 소위 노아의 계명들(레 19:4, 29, 3:17)이 부과되었다.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요청, 행 15:20)

⁴ Tertullianus, *De praescriptione haereticorum*, VII, 9, CChrSL 1, 193: “*Quid ergo Athenis et Hierosolymis? Quid academiae et ecclesiae? Quid haereticis et christianis?*”

⁵ 1978년에서부터 1990년까지의 교부들에 대한 연구가 4세기 삼위일체신앙논쟁에 집중된 것을 발견하고, 아돌프 마르틴 리터는 이러한 연구사를 개괄하여 하나의 소논문을 썼다. Adolf

1951년부터 Henry Chadwick을 중심으로 4년마다 옥스퍼드에서 국제학회를 모여왔는데, 1991년 제11회 대회때까지만 하더라도 기금을 마련하여 참여자들에게 후원할 수 있을 정도로 참여자들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1995년 12회 대회 때에는 참가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대되었다.⁶ 점차 연구 분야도 넓혀져서 거의 모든 교부들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여기에서 테르툴리아누스에 대한 연구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에 대한 그간의 연구를 통하여 이전 연구가들의 역사적인 설명, ‘테르툴리아누스의 아버지가 집정관 출신 지방총독 관할의 백부장(*centurio proconsularis*)⁷이었고, 로마에서 법률가로서 활동하였다’는 일반적인 주장은 근거 없는 것⁸으로 입증되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카타리나 그레샤트는 사회인류학적인 다양한 접근방법에 의하여 연구한 학자들의 글들을 중심으로 테르툴리아누스를 북아프리카 출신으로 기원전 29년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 의하여 식민지 로마에 귀속된 후⁹에 기원후 2~3세기에 삶을 살았던 자로서 테르툴리아누스의 글에서 북아프리카와 로마 사이의 갈등이 곳곳에 나타남을 입증하려고 노력한다.¹⁰

에릭 오스본은 테르툴리아누스에 관한 글에서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두 가지 문장 중 하나인 “아테이나 예루살렘이나”의 테마를 “하나의 퍼즐”로, ‘왜냐하면 스토아 철학자 테르툴리아누스 안에서 아테이 예루살렘과 함께 행해야 하는 몫을 갖기 때문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인 “내가 믿

Martin Ritter, “Arius redivivus?: Ein Jahrzehnt Arianismusforschung,” *ThR* 55 (1990): 153-87.

⁶ 조병하, 『교부들의 신학사상』 (서울: 그리스, 2005(2009 2쇄)), 26-27.

⁷ Hieronymus의 글 *de viris illustribus*에 기초한 주장은 더 이상 문서의 증거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⁸ E. Schulz-Flügel, Art. “Tertullian,” in *Lexikon der Antiken Christlichen Literatur*, 3. Aufl., hrg. v. Siegm. Döpp u. Wilhelm Geerlings (Freiburg u. a. m.: Herder, 2002), 668.

⁹ Wilhelm M. Gessel, Art. “Karthago,” in *LThK* 5, 3. Aufl., 1272. 이 자료에 따르면, 카르타고는 기원전 146년에 온전히 파괴되어졌고, 기원전 29년에 황제 아우구스투스(Octavianus)에 의하여 Colonia Concordia Iulia Carthago로 세워졌다. Winfried Elliger, *Karthago: Stadt der Punier, Römer, Christen* (Stuttgart: W. Kohlhammer, 1990), 11-14.

¹⁰ Katharina Greschat, “Neue Perspektiven auf einen alten Polemiker? Der postkoloniale und allegorisierende Tertullian,” *ThR* 74 (2009): 480-85.

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credo quia absurdum est)의 테마를 “하나의 페러독스”(역설)로, ‘왜냐하면 확실성과 적합지 않음과 확신과 불가능이 반목하기 때문’이라고 정의하면서 중요한 테르툴리아누스에 대한 연구테마로 제시하고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¹¹ 오스본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장 *credo quia absurdum est*를 테르툴리아누스의 것으로 연관시켜 그들의 주장을 정당화 한 것에 대하여, 13세기 신학용어 안에서와 첫 번째 바티칸 공의회(1869년 12월 8일부터 1870년 7월 18일까지)에서 테르툴리아누스를 “명시적으로 해석하였다”고 기술한다.¹²

사실 테르툴리아누스의 중심적인 정신유산으로 이 문구를 제시하였던 키에르케고어(Søren Kierkegaard, 1813~1855)에게서 하나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그는 논증 후기에 테르툴리아누스의 글들을 직접 인용한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2차 문헌에서 인용하였다.¹³ 피에레 뷔러는 ‘키에르케고르가 덴마크 교회제도와 의 싸움에서 테르툴리아누스를 “협력자”(Ally)로 들이 되었다’고 평가할 정도이고,¹⁴ 그는 키에르케고어가 테르툴리아누스로부터 이어받은 “주요 유산”으로써 문장 “*credo quia absurdum*”을 1838년 여름부터 그의 글들에서 “간편하게”(simply) 사용하고 있고, 그 이전, 1837년 가을까지는 테르툴리아누스의 본래의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었고, 1839년 7월부터 그 문장으로 “모든 지식의 중요성의 경멸”을 표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¹⁵

사실 테르툴리아누스가 그의 글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 대하여, “*credibile est quia ineptum est*”(그것은 믿을 수 있다. 왜냐

¹¹ E. Osborn, *Tertullian, First Theologian of the Wes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rep. 1999)), 27.

¹² Osborn, *Tertullian*, 28.

¹³ Pierre Bühler, “Tertullian: The Teacher of the Credo quia absurdum,” in *Kierkegaard and the Patristic and Medieval Traditions*, ed. Jon Stewart, in *Kierkegaard Research: Sources, Reception and Resource*, vol. 4 (Hampshire: Ashgate, 2008), 131-32(131-42).

¹⁴ Bühler, “Tertullian: The Teacher of the Credo quia absurdum,” 134.

¹⁵ Bühler, “Tertullian: The Teacher of the Credo quia absurdum,” 136. 키에르케고어의 테르툴리아누스의 원리에 대한 해석의 변화들은 이어지는 피에레 뷔러의 이어지는 글을 참고하라(136-38)!

하면 그것이 적합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그리고 ‘장사지내졌던 자의 부활’에 대하여, “*certum est quia impossibile*”(그것은 확실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이다.¹⁶

한편 오스본은 “아테이나? 예루살렘이나?”의 퍼즐을 풀기 위하여 그간 있었던 테르툴리아누스의 연구들을 몇 가지 해법으로 정리하였다. 우선 정신분석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그리고 문화사적인 방법과 철학자로서의 테르툴리아누스 자신을 살핀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도교 저술가들과 같은 범주에서 테르툴리아누스는 아텐에 해당되는 철학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수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⁷ 오스본의 주장에 따르면, 테르툴리아누스는 철학을 거절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전체로서의 철학을 수용하지 않는다. 믿는 자로서 그는 철학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철학과 수사학 안에서 그 자신의 훈련은 포기될 수 없었다.¹⁸

또한 이 질문에 대한 해법으로 테르툴리아누스가 신앙의 규범을 정리하여 제공하고, 그 안에서 그가 헬라철학을 그리스도인의 신학 안에서 일치시켰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요약한다고 주장한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정되고 완전하게 되었다.¹⁹ 역시 테르툴리아누스는 최종적으로 테마를 성경으로부터 가져왔고, 철학의 속임수가 그의 주장을 통하여 정당화 하였다. 그는 골 2:8을 인용하여 증거 하는 태도가 성경을 신탁(*oracle*)으로써가 아니라 척도(*criterion*)로써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²⁰

“아테이나? 예루살렘이나?”의 주장은 이미 티모티 데이비드 반즈에 의하여 “Knowledge or Revelation?”(학문/지식이나 혹은 계시냐?)로, 그가 테르툴리아누스에 대하여 쓴 글에서 정리하고 있다. 이 글에서 반즈는 둘 사이의 대립된 논지를 펴기보다는 테르툴리아누스 글 전체를 개괄하고

¹⁶ Tertullianus, *de carne Christi*, V. 4, CChrSL 2, 881.

¹⁷ Osborn, *Tertullian*, 29.

¹⁸ Osborn, *Tertullian*, 31.

¹⁹ Osborn, *Tertullian*, 38-39.

²⁰ Osborn, *Tertullian*, 47.

해석하는 큰 틀에서 다루고 있어서 논쟁의 여백을 갖지 못했다.²¹ 또한 오스본과 같은 호주 학자인 젊은 학자 제프리 던은 오스본의 주장을 깊이 영향 받아 “Philosophy and Tertullian”(철학과 테르툴리아누스)이라는 항목으로 이 주제를 설명하고 있다.²² 던은 위 오스본의 테마를 믿음과 이성사이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던에 의하면, 테르툴리아누스에게 있어서 철학의 가르침이 그리스도교의 가르침과 부합한다는 것이 가능했고 성경에서 그 내용을 빌렸던 만큼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테르툴리아누스에게 있어서 당시 철학의 방법은 진리를 왜곡할 수 있었다. 그것이 진리의 요소를 포함하더라도 철학에 단단히 붙잡혀 있는 만큼, 테르툴리아누스가 모든 철학을 무시하기 위하여 생각했던 만큼 많이 왜곡될 수 있다.²³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테르툴리아누스는 “반 철학적이거나 반이성적이지 아니하다. 오히려 테르툴리아누스는 계시를 토대로 한 철학을 발전시켰고, 철학과 이성을 신앙에서 분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신앙에 토대하여 이성을 발전시켰다.”²⁴ 테르툴리아누스에게 있어서 이성과 신앙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들은 그의 교육의 틀에 사용되었다. 그에게 이성은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성경에서 계시하였던 것으로 이끌기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성은 신앙의 규범에 복종함으로써 그 가치가 있고, 완전한 것(“그리스도의 최종의 완전”²⁵)이 올 때 마치 철학처럼 부분적인 것으로써 사라져야 할 것이다.²⁶

테르툴리아누스에게 진리는 그것 자체가 스스로 나타날 수 있다. 뿐만

²¹ Timothy David Barnes, *Tertullian: A Historical and Literary Study* (Oxford: Clarendon Press, 1971 (rep. 2005)), 115-29.

²² Geoffrey D. Dunn, *Tertullian*, in *The Early Church Fathers*, ed. Carol Harrison (London & Routledge, 2004 (rep. 2008)), 31-34.

²³ Dunn, *Tertullian*, 31.

²⁴ Dunn, *Tertullian*, 32.

²⁵ 던은 여기에서 오스본의 주장을 인용하고 있다(Osborn, *Tertullian*, 46).

²⁶ Dunn, *Tertullian*, 33.

아니라 인간의 지혜나 철학을 통하여서는 불가능하다. 무엇보다도 진리가 영지주의자들의 “단계적 획득”(stufenweise Erlangung)을 통하여 이해되어질 수가 없다. 계시를 받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즉, 진리의 형상으로써 인간은 능력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진리, 지혜, 이성인 이 세상을 능가한다는 전제 아래서 이성의 능력으로 계시에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하게 이성 홀로 인식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철학 이론을 거부한다.²⁷ 또한 테르툴리아누스는 하나의 셋(eine Trias)으로 성경과 나란히 본성(natura)과 훈육(disciplina)을 권위들로서 제시한다.²⁸

2. 『이단자들의 항변에 대하여』에서 성경해석의 원리 연구

테르툴리아누스의 글에서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두 문장 중 하나인 “내가 믿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²⁹는 앞에서 그의 글 *de carne Christi*의 5장 4절을 잘 반영하고 있고, 그 내용이 현대 철학자에 의하여 자신의 목적에 맞게 해석되어졌다는 사실을 살폈다. 그러나 ‘아텐이나? 예루살렘이나?’의 테마는 테르툴리아누스의 글 『이단자들의 항변에 대하여』의 전체의 중심 테마를 형성하고 있고, 테르툴리아누스의 사상 전체에 반영된 질문임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이 글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 글을 중심한 최근 연구들 중 하나인 제프리 던의 글을 들 수 있다. 던은 *de praescriptione haereticorum*를, 테르툴리아누스의 성경해석의 원리를 연구 하고자 할 때, 그의 글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논문(treatise) 중에

²⁷ Eva Schulz-Flügel, “Tertullian,” in *Theologen der Christlichen Antike*, hrg v. Wilhelm Geerlings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2002), 18-19.

²⁸ Schulz-Flügel, “Tertullian,” 20.

²⁹ Cf. Tertullianus, *de carne Christi*, V. 4, CChrSL 2, 881.

하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글이 성경해석의 원리를 제공했더라도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개요가 이 글에 나타나는 것은 아님을 밝힌다.³⁰ 테르툴리아누스는 이 글에서 자신의 전체적인 주장을 위하여 주요하게 사용하는 성경구절 마 7:7; 눅 11:9의 부분,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라는 말씀을 예로 들어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 하려는 이단들의 성경해석을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제프리 던은 이 성구를 중심으로 한 테르툴리아누스의 논지를 통하여 테르툴리아누스의 성경해석원리를 정리한다. 우선 “신앙의 규범”(regula fidei)이 성경해석의 하나의 척도였음을 밝힌다. 테르툴리아누스는 그의 글 여러 곳에서 신앙의 규범을 제시하고 있다. 뚜렷하게 자구적으로 일치된 내용은 없지만 포함하는 내용은 분명하다. 이것을 제프리 던은 “신앙의 요약”(summary of faith)이라고 평가한다. 던은 이를 위하여 *de praescriptione haereticorum* 13, 2-5(*illa ... qua creditur*)를 제시한다. 그리고 규범이 “그리스도에 의하여 가르쳐졌고, 사도들에 의하여 통가되어졌고, 성경들 안에 기록되어졌고, 그리고 교회에 의하여 살아졌던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다.³¹ 그리고 던은 “이런 의미 안에서 신앙의 규범이 성경, 가르치는 권위와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내포하였다”³²고 주장한다.

또한 던은 그의 연구를 통하여 두 가지 성경해석의 원리를 정리하고 있다. 첫 번째 원리는, “그것의 역사적인 문맥 안에서 읽어야만 한다.”는 것—그래서 던은 테르툴리아누스가 마 7:7의 주어진 내용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초점”을 맞춘다고 주장한다.³³ 그리고 두 번째 원리는, “하나의 성경 구절의 진의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에 의하여 확정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그것은 “이성의 훈육 / 가르침(*disciplina rationis*)에 의하여 확정”되어졌던 것이었다고 주장한다.³⁴ 던은 테르툴리아누스의 글 본문의

³⁰ Dunn, “Tertullian’s scriptural exegesis in *De praescriptione haereticorum*,” in *Journal of Early Christian Studies* 14/2 (2006): 141.

³¹ Dunn, “Tertullian’s scriptural exegesis in *De praescriptione haereticorum*,” 147.

³² Dunn, “Tertullian’s scriptural exegesis in *De praescriptione haereticorum*,” 147-148.

³³ Dunn, “Tertullian’s scriptural exegesis in *De praescriptione haereticorum*,” 149, 155.

내용에서 성경해석의 원리를 정리할 뿐만 아니라 테르툴리아누스의 성경 해석을 위한 수사학적인 접근법도 소개하고 있다.³⁵ 던은 테르툴리아누스의 수사학적 접근으로 말미암아 이 글의 주제인 “아덴과 예루살렘에 관한 그의 해석들”을 표면적인 가치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언한다.³⁶

그러나 테르툴리아누스는 이를 통하여 단순히 수사학적인 표현에 한정되기 보다는 이단들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들에게 그리고 감독들에게 전승된 가르침이 아닌 다른 가르침을 당시 혼합주의적 철학에 영향을 받아 가르치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테르툴리아누스의 위의 두 주장들 즉, “credo quia absurdum est”와 “아덴이냐? 예루살렘이냐?”에 대하여 이상의 연구자들 중에 호주 학자 오스본은 “신앙지상주의자들 안에서 계몽을 위한 양자택일의 슬로건”³⁷이라고 설명하고, 테르툴리아누스를 “가장 있을 법하지 않은 신앙지상주의자—어느 누구도 그렇게 참기 어렵게 주장하지 않는다”³⁸고 강조하고 있다. 역시 같은 호주학자로서 오스본의 신학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던 역시 이 같은 주장들을 “이성론자(rationalist)들보다 오히려 신앙지상주의자(fideist)들과 철학대항자들”이 더욱 자주 고려하였다고 주장한다.³⁹ 그러나 우리는 이들의 용어선택에서 가톨릭 신학적인 면모를 읽게 된다. 두 학자들은 테르툴리아누스의 가르침을 너무 후대의 테마로 교부학관점에서 다루는 자신들의 테마를 정당화 하였다. 물론 테르툴리아누스가 신앙지상주의자들의 주장을 정당화 하지도 않지만, 구원론이 테르툴리아누스 시대의 신학논쟁의 중심 주제가 아님으로, 역시 그는 “행위의 만족(satisfactio operis)”를 통한 행위의 보상론도 정당화 해 주고 있지도 않다. 그는 역사적인 시기와 테마에 전혀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³⁴ Dunn, “Tertullian’s scriptural exegesis in *De praescriptione haereticorum*,” 150, 155.

³⁵ Dunn, “Tertullian’s scriptural exegesis in *De praescriptione haereticorum*,” 151-54.

³⁶ Dunn, “Tertullian’s scriptural exegesis in *De praescriptione haereticorum*,” 154.

³⁷ Osborn, *Tertullian*, 27.

³⁸ Osborn, *Tertullian*, 29.

³⁹ Dunn, *Tertullian*, 31.

3. 『이단자들의 항변에 대하여』에서 ‘아테인가? 예루살렘인가?’의 의미

우리들이 이와 같은 주제를 논하기 위하여서는 테르툴리아누스 당시의 몇 가지 역사 상황들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우선 이 글이 쓰여질 때는 신약성경이 모아져 그리스도교의 규범이 되기 시작했을 때이다. 그리스도교가 시작되어 20년쯤 지난 51년경부터 데살로니가전서를 시작으로 기록되어, 그것들이 단편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전달되어지던 신약성경의 내용들이 모든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오늘날 경전으로 활용되는 신약 27권이 대부분 포함되어 모아진 때를 교부학자들은 빠르면 140년경, 늦어도 180년경으로 보고 있다.⁴⁰ 이러한 역사의 경과는 테르툴리아누스가 진리의 권위를 구전전승(케뤼그마)에 의하여 형성되었던 신앙의 규범(regula fidei) 혹은 진리의 규범(regula veritatis)에서 모아진 성경으로 옮겨 놓도록 하였다.⁴¹ 교회가 갖고 있던 공통의 신앙의 규범은 성경의 경전화 과정에서 이단들에 의하여 쏟아져 나왔던 문헌들(특히, 영지주의 문헌들)을 골라내는 시금석 같은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구전 전승의 내용들은 약화되게 되었다. 모아진 성경이 그것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2세기에 당면하였던 많은 문제들(로마사회로부터의 비난과 조롱, 유대교로부터의 그리스도교의 분리, 각종 이단들 특별히 영지주의, 마르키온 등으로부터 교회의 위협)로 그리스도교의 존립이 위협받아 위기를 맞았던 시기를 막 벗어나면서 2세기 말경에는 그리스도교 안에서 신앙의 규범, 성경의 경전, 군주제의 감독직이 확립될 수 있었지만, 아직도 모아진 성경에 대한 해석의 문제, 유대교나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교가 누구인

⁴⁰ 물론 신약 27권이 경전으로 확정된 연대는 367년(아타나시오스 부활절서신에 포함)이다.

⁴¹ 이와 같은 구전전승과 기록된 문서사이에 권위의 이전 현상은 뤼옹의 이레나우스, 테르툴리아누스, 오리게네스에게 공통으로 발견된다. 한편 세카파도키아인들 중 한 사람인 카이사레아의 바실레이오스는 아직 자신의 시기에 성만찬에 아직도 구전전승(케뤼그마)의 요소가 남아 있다고 말하고 있다.

가에 대한 그리스도 신앙이해의 문제, 끝나지 않은 이단들과의 싸움이 현안 문제로 떠오르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⁴²

이러한 역사적인 정황 중에서 테르툴리아누스는 자신에게 주어졌던 과제를 풀어냈어야만 했다. 무엇보다도 당시에 테르툴리아누스는 영지주의와 마르키온 이단과 싸워야 했다. 이들 이단들은 공통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같을 수 없다는 하나님 이해에 큰 문제를 던졌고 자연스럽게 이 시기는 하나님 이해에 대한 논쟁이 중심을 이룰 수밖에 없었다. 특히 영지주의 자들과는 그들이 철학지식을 혼합하여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왜곡시켰기 때문에 당시 철학에 대한 테르툴리아누스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테르툴리아누스는 *De praescriptione haereticorum*을 썼다. 책의 제목을 우리말로 번역해 보면 『이단들의 항변에 대하여』⁴³이나 『이단들에 대항한 항변』라고 할 수 있겠다. 전자는 테르툴리아누스가 두 종류의 이단들의 항변⁴⁴에 대해 살펴 반박의 글을 썼다는 적대자들의 특성을 반영한 의미이고, 후자는 같은 내용에 대하여 이단들의 항변에 반박하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앞의 번역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 이 글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하여, 테르툴리아누스는 그의 글 머리에서, “현 시대의 상황이 아직도 여전히, 우리들이 그러한 이단들에 대하여 의아하게 생각하지 말아야만 한다는 이러한 경고를 자극하다. 왜냐하면 그들이 있고, 즉 미래에 있을 그들이 이전에 이미 예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이 몇몇 사람들의 신앙을 전복시켰기 때문이다”⁴⁵라 쓰고 있다.

그리고 이 글의 제목이 되는, “무엇이 아덴과 예루살렘에 속하는가?

⁴² 리터, 『고대그리스도교의 역사』, 75-80.

⁴³ Tertullianus, *De praescriptione haereticorum*, XV, 1, 199.

⁴⁴ Tertullianus, *De praescriptione haereticorum*, XXI, 202-203.

⁴⁵ Tertullianus, *De praescriptione haereticorum*, I, 1, 187.

무엇이 아카데미와 교회에 속하는가? 무엇이 이단들과 그리스도인들에 속하는가?”⁴⁶라는 질문은 해당 글의 중심 논의를 위한 중요한 수사학적 질문이 된다. 이 질문의 의미를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하여 7장 8~13절을 번역하여 옮겨 본다.

8) 그가 아테네에 있었고(비, 행 17:15-), 그리고 그가 만남들로부터 진리의 흉내쟁이와 변형자/ 파괴자(affectatricem et interpolatricem)로써 이러한 인간의 지혜를 알았다. 그리고 그것 자체는 아주 똑같이 상호간에 상반되는 학파들의 다양성을 통하여 그들의 이단들로 몇 갈래로 나누어졌다. 9) 따라서 무엇이 아테네와 예루살렘에 속하는가? 무엇이 아카데미와 교회에 속하는가? 무엇이 이단들과 그리스도인들에 속하는가? 10) 우리들의 지도(가르침, institutio)는 솔로몬의 행각(비, 행 5:12)⁴⁷으로부터 있다. 그 자신(솔로몬)은 역시 주를 “마음의 순수함 안에서”(지혜 1:1) 찾아야만 한다고 전하였다. 11) 스토아의, 플라톤의, 그리고 변증법의 그리스도교를 만들어내었던 그들은 조심해야 할 것이다! 12) 우리에게 지식욕이 그리스도 예수 이후에 더 이상 필요치 아니하고 연구가 복음 이후에 (더 이상 필요치 아니하다). 13) 우리들은 믿을 때 믿은 일을 넘어 결코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보다 이전에 그 것을 넘어 믿어야만 했던 것이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⁴⁶ Tertullianus, *De praescriptione haereticorum*, VII, 9, 193: “*Quid ergo Athenis et Hierosolymis? quid academiae et ecclesiae? quid haereticis et christianis?*” 일반적인 목적의 여격(Dativus)의 문법을 적용하여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문장들에는 esse 동사가 생략되어 있고, 목적의 여격에 esse 동사가 활용되면, “무엇이 누구(어떤 것)에 속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 Dietrich Schleyer는 이 문장을 독일어로, “Was haben also Athen und Jerusalem gemeinsam, was die Akademie und die Kirche, was Häretiker und Christen?”(따라서 무엇을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공유하는가? 무엇을 아카데미와 교회가, 무엇을 이단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공유하는가)?)(Tertullianus, *De praescriptione haereticorum*=*Vom prinzipiellen Einspruch gegen die Häretiker*(lateinisch-deutsch), übers. u. eingl. v. Dietrich Schleyer, in *Fontes Christiani*, Bd. 42 (Turnhout: Brepols Publishers, 2002), 245)라고 번역하였고, Heinrich Keller는 “Was hat also Athen mit Jerusalem zu schaffen, was die Akademie mit der Kirche, was die Häretiker mit den Christen?”(따라서 아테네 예루살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아카데미가 교회와 무슨 관계가, 이단들이 그리스도인들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번역하였다(*Die Prozeßreden gegen die Häretiker in Bibliothek der Kirchenväter*, 1. Reihe Bd. 24, 1915).

⁴⁷ Cf. 요 10:23; 행 3:11-26.

이는 근본적으로 이단들이 다양한 주장들로 나뉘어 있고, 다양한 사상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이 아덴에, 그리고 어떤 것이 예루살렘에 속한 것인지를 확인시키느라고 테르툴리아누스가 한 질문이다. 그리고 그의 논박을 통하여 밝히는 것은 “철학이나 계시냐”이다. 해당 글안에서 테르툴리아누스가 ‘아덴이나 예루살렘이나’의 질문이 “철학의 가르침이나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이나”의 내용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테르툴리아누스의 논박과 가르침

이 글에서 테르툴리아누스가 반박하고 있는 세 중요한 이단들(Valentinus, Marcion, Apelles)⁴⁸이 있고, 이들을 포함한 이단들이 다음의 두 가지 중심적인 항변을 한다. 하나는, “사도들이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하였다(non omnia apostolos scisse)”는 것과 다른 하나는, “사도들이 과연 모든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사도들은 모든 것을 모두에게 전승하지는 못하였다(omnia quidem apostolos scisse sed non omnia omnibus tradidisse)”고 말한다.⁴⁹ 또한 테르툴리아누스는 이 두 가지가 신빙성이 없을 때에 ‘사도들이 단순하고 풍부하게 전했으나 교회가 그것의 오류를 통하여 사도들이 진술했던 것보다 다르게 받아들였는지도 살필 것’을 피력하고 있다.⁵⁰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변증하고 있는 내용이 이 글의 목적이다.

테르툴리아누스는 이 글에서 1) 이단들의 종류와 그들의 사상 배경, 주장 등, 2) 논박을 위하여 활용한 이단들의 성구와 지식욕의 자극, 3) 믿음의 규범(regula fidei), 4) 성경에 대한 태도, 5) 그리스도와 사도적 교회, 정통교회의 사도적 기원, 감독직 안에서 사도계승에 대한 입장을 분

⁴⁸ Tertullianus, *De praescriptione haereticorum*, VI, 6-VII, 6, 191-92; XXX, 1-13, 210-12; XXXIII, 1-12, 213-14.

⁴⁹ Tertullianus, *De praescriptione haereticorum*, XXII, 2, 203.

⁵⁰ Tertullianus, *De praescriptione haereticorum*, XXVII, 1-2, 208.

명히 하고 있다.

4.1. 이단의 종류와 사상

테르툴리아누스가 이 글에서 제시하는 중심 이단들은 Valentinus, Marcion, Apelles, Hermogenes 등이다. 물론 그는 이 글을 쓸 203년경에는 Montanus 주의자들이 온 교회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을 때이지만, 207년 이후 Montanus 운동에 빠지는 그로서는 Montanus 운동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앞에서 밝힌 대로 이단들은 있게 될 것이 이미 예고되었고,⁵¹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무기력과 몰락”(languorem et interitum)⁵²을 위하여 생산되었다. 또한 이들은 역시 “한 이단에 의하여 받아들여졌던 몇몇 사람들”로서 “매우 신앙이 깊은 자들이었거나 매우 영리한 자들이거나 교회 안에서 매우 관습적인 사람들”이 아니었는지를 반문한다.⁵³ 그리고 이와 같은 이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에 대하여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는 이유는 이스라엘 왕 사울이나 다윗, 솔로몬이 실패했던 것에서 교훈하듯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과오 없이(sine delicto) 보존되는 것이 고수되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가 바른 신앙이 없다면 지혜롭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더욱 높은 자일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그가 끝까지 견디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⁵⁴

역사적으로 “박해는 역시 순교자들을 내었고, 이단자는 단지 배교자들을 내었다.”⁵⁵

영지주의자들의 문서들 중에서 『이집트인의 복음서』는 ‘부활하신 자가

⁵¹ Tertullianus, *De praescriptione haereticorum*, I, 1, 187; IV, 1-2, 189.

⁵² Tertullianus, *De praescriptione haereticorum*, II, 2, 187.

⁵³ Tertullianus, *De praescriptione haereticorum*, III, 1-2, 188.

⁵⁴ Tertullianus, *De praescriptione haereticorum*, III, 4-6, 188.

⁵⁵ Tertullianus, *De praescriptione haereticorum*, IV, 5, 190.

승천 전에 계시의 산(세상)에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여 비밀의 교의를 선포했다'고 주장하였고, 테르툴리아누스는 이와 같은 주장을 반박하였다.⁵⁶ 이단들의 가르침은 “인간들과 악마들의 가르침”(비. 골 2:22; 딤후 4:1; 딤후 4:3)이고, “세상 지혜의 특성(ingenium)”으로부터 발생하였고, 이단들은 “철학 자체의 혼합 안에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였다. 즉, 이것이 세상 지혜의 내용(질료/ materia)이고 신의 본성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dispositio)의 무모한 해석자이다.”⁵⁷

테르툴리아누스는 계속하여 이단들이 철학에 의하여 무장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여러 이단들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정리하고 있다. 그는 발렌티누스가 “아이온들”(aeones 그는, ‘세계정신의 종류들’을 말한다, 무한히 긴 시간들), “무수한 형태들”(formae quae infinitae)⁵⁸과 “인간의 삼분할”(trinitas hominis)을 가르치고 있고, 그가 “플라톤주의자 이었다”는 것을 보인다. 또한 마르키온은 “하나님이 침묵으로부터 (있기 때문에) 더욱 선하신 이이다”라고 말함으로써 “스토아주의 자들로부터 있었다.” 그리고 이단들 중에 어떤 이들은 에피쿠루스를 따라서 “영혼이 몰락한다”고 주장하고, 많은 철학자들의 하나의 학파를 따라 “육체의 복구(회복, 부활, restitutio)를 부정”하고, 제논의 가르침에 따라 “질료(materia)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불로써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것이 제시되어지는 곳에서”, ‘헤라클리투스가 사이에 끼어든다’고 주장하고, “동일한 질료 자체가 이단들과 철학자들과 함께 고려되어졌다”고 그는 비판한다. 아울러 그는 발렌티누스가 “하나님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라는 질문에 “고려(갈망)와 조산(유산)으로부터”(de enthymesi [ἐνθύμησις, 숙고/생각] et ectromate [ἐκτρώμα, 유산/낙태])라고 답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아리스토텔

⁵⁶ Das Ägypterevangelium, in Bibel der Häretiker: Die gnostischen Schriften aus Nag Hammadi, einl. u. übers., komm. v. Gerd Lüdemann u. Martina Janßen (Stuttgart: Radius, 1997), 245; 리터, 『고대그리스도교의 역사』, 40. Cf. Tertullianus, *de praescriptione haereticorum*, II, 5, 187-88.

⁵⁷ Tertullianus, *De praescriptione haereticorum*, VII, 1-2, 192.

⁵⁸ 이 글의 번역자 디트리히 술라이에르는 번역의 각주에서, “이 용어 *formae*가 플라톤의 이데아를 간접적으로 지칭한다.”고 주장한다. Tertullianus, *De praescriptione haereticorum*=*Vom prinzipiellen Einspruch gegen die Häretiker*, 242, 각주 9.

레스의 논증법적인 것(논쟁하는 기술)을 전수 받아 이단들이 세우고 파괴하는 일의 명수고 졸렬하고 과장된 논증들을 펼친다고 혹평하고 있다.⁵⁹

테르툴리아누스는 이단들의 두 가지 항변들에 대하여 답하면서 그가 생각하고 있는 이단들을 다시 묘사하고 있다. 그는 계속하여 배의 소유자였던 폰티쿠스의 마르키온을 스토아 철학의 숭배자로 발렌티누스⁶⁰를 플라톤주의의 추종자로 규명하고 있다. 그들은 로마 황제 안토니누스 피우스 시대(138~161)에 살았고, 당시 카톨릭교회의 가르침을 따랐던 로마 감독은 에레우테루스(Eleutherus)⁶¹였다. 그들은 “항상 불안한 지식욕(ob inquietam semper curiositatem)” 때문에 오류에 빠졌고 이로 인하여 로마 공동체로부터 추출되었다. 마르키온은 로마 공동체에 20만 제스테르쯔(고대로마의 은화)⁶²를 헌금하였던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침의 독소들(venena doctrinarum)”을 퍼뜨렸던 그는 영구히 공동체로부터 쫓겨났다. 그러나 곧 바로 그의 참회가 있었고, 그가 교회와의 평화와 그에 의해 파멸로 이끌렸던 이들을 교회로 되돌려 놓는 조건으로 공동체에 받아들여졌으나,⁶³ 그의 죽음으로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일을 이루지 못했다.⁶⁴

테르툴리아누스가 강력하게 반박하는 이단들 중 하나는 아펠레스(Apelles)이다. 그는 이전에 “교육되어졌던 자(praeformator)”였던 마르키온의 제자였고, 그는 그의 스승보다 젊었다. 한 여인에 의한 그의 타락은 마르키온의 금욕을 포기하게 만들었고, 마르키온을 떠나 알렉산드리아로 도망하여

⁵⁹ Tertullianus, *De praescriptione haereticorum*, VII, 3-6, 192.

⁶⁰ 135년경부터 로마교회성도들을 가르쳤고, 160년경에 로마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타고난 재능이 있고 달변가 이었던 발렌티누스는 ‘로마교회의 감독을 기대했으나 순교의 특권을 지닌 다른 이가 로마의 감독이 되면서 “신뢰할 수 있는 규범의 교회로부터”(de ecclesia authenticae regulae) 떨어져 나갔다’(Tertullianus, *adversus Valentianianos*, IV, 1, in *CChrSL* 2, 755).

⁶¹ 슈바이거가 에레우테루스의 감독재직 기간을 174~189로 제시한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Georg Schweiger, Art. “Eleutherus,” in *LThK* 3, 586). 200년경까지의 감독들의 목록과 재직 기간은 불투명하다.

⁶² 1만 제스테르쯔는 로마원로원 재산의 10배이고, 오늘의 화폐로 약 3억 5천에서 4억으로 환산할 수 있다. 1제스테르쯔는 1/4테나리우스이다.

⁶³ Tertullianus, *De praescriptione haereticorum*, XXX, 1-3, 210.

⁶⁴ 마르키온 공동체의 형성과 확산에 대하여 Barbara Aland, “Markion,” in *LThK* 6: 1392을 참조하라.

갔었다. 그곳으로부터 여러 해 후에 다시 돌아온 그는 이제 더 이상 마르키온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를 타락시켰던 처녀 필루메네(Philumene)는 “놀랄 만한 매춘부(prostibulum)”였고, 그녀에 의하여 그는 간악하게 농락되었으며, 그는 그녀가 경험하였던 “계시들(Φανερώσεις)”⁶⁵을 기록하였다. 테르툴리아누스는 이들의 추종자들이 자신의 시대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증거 한다.⁶⁶

그의 글 후반부에서 테르툴리아누스는 정통교회의 사도의 기원과 감독의 사도계승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단들의 사상을 다음과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즉, 발렌티누스는 부활을 부정하고(33:7) 8개의 아이온으로부터⁶⁷ 10개의 다른 아이온과 12개의 그 밖의 아이온들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여 30개의 아이온들의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퍼뜨리고 ‘유일한 아이온의 오류(vitium)로부터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기원을 이끌어 낸다.’(33:8; 34:4) 또한 결혼을 금했던 마르키온(33:6)은 창조자 이외에 “다른 하나님(alium deum)”을 도입(34:3)하고, 아펠레스는 창조자를 위하여 위에 계신 하나님의 그 어떤 임의의 “영광스러운 천사”를 만들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작렬하는 자”라 주장하고, 두 천사 중 하나인 영광스러운 천사(angelus gloriosus)를 데미우르고스로 다른 하나인 빛을 발하는 천사(angelus igneus)를 율법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정의하였다.(33:4) 헤르모게네스는 “생성되지 않았던 물질(materiam non natam)”을 소개하고 “생성되지 않았던 하나님과 동렬에 놓았다.”(33:9)⁶⁸

4.2. 논증을 위해 활용했던 이단들의 성구와 지식욕

테르툴리아누스는 이단들이 “지식욕의 시작하기를 위하여”(ad ineundam

⁶⁵ 이 단어를 고후 4:2에서 사용, 의미는 “나타냄”으로 번역되었다. Cf. ἀποκάλυψις.

⁶⁶ Tertullianus, *De praescriptione haereticorum*, VI, 6, 191; XXX, 5-8, 211.

⁶⁷ 아이온으로부터 하나의 새로운 것이 나오고 같은 이름을 소유하고, 그 아이온의 은혜, 사고(지력), 진리, 로고스, 생명, 인간, 교회를 열거 한다.

⁶⁸ Tertullianus, *De praescriptione haereticorum*, XXXIII, 1-XXXIV, 4, 213-15.

curiositatem) 구실로 삼았던 성경구절 마 7:7,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quaerite et invenietis*)”를 그의 논증을 위하여 제시한다.⁶⁹ 그리고 이단들이 이 성구를 근거로 진리를 추구해야할 것을 주장하며, 그들 스스로 다양한 진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테르툴리아누스는 이 성구의 해석을 통하여 그것의 정당한 의미가 무엇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찾으라!”의 의미가 특별히 “이전에 하나님 편에 있었던” 유대인과 관계에서 내용을 이해해야 하고, 요 5:39,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 하는 것이니라”라는 말씀, 즉 연구하는 이들이 찾는 것으로 죄로 추방당해서 문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⁷⁰ 그에 의하면 찾는 일이 항상 문밖에 서 있었던 이방인들에게는 불필요한데 그들은 문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혜사로 오신 성령이 모든 진리로 이르도록 이끌고, 진리가 “성령을 통하여 사도들에게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어졌던 것이기 때문이다. 테르툴리아누스는 모든 말씀이 모두를 위하여 있지만 유대인들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왔다고 주장한다.⁷¹

테르툴리아누스는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찾으라!”는 의미는 “해석의 조종간을 가지고(*cum interpretationis gubernaculo*) 온전한 방법으로” 찾으라는 의미인데, 그리스도가 “유일하고 명백한 가르침(*unum et certum institutum*)”을 가져왔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백성들이 믿어야만 하고, 그런 까닭에 그들은 그것을 찾았을 때 믿을 수 있기 위하여 찾아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지식욕의 충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유일하고 명백한 가르침”을 영구히 찾아서는 안 되고, 사람들은 찾을 때까지 찾

⁶⁹ Tertullianus, *De praescriptione haereticorum*, VIII, 1-2, 193.

⁷⁰ Tertullianus, *De praescriptione haereticorum*, VIII, 3-8, 193-94.

⁷¹ Tertullianus, *De praescriptione haereticorum*, VIII, 9-16, 194.

아야 하는데, 그는 “발견하는 즉시 믿어야 한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받아들였던 것을 보존하는 일보다 찾는 어떤 것도 더 이상 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결과적으로 찾기를 허용하지 않은 것을 믿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⁷² 그는 계속하여 찾아야 할 내용이 ‘그리스도가 가르쳤던 것’ 즉, ‘믿음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찾고, 찾는 즉시 믿으며, 그리고 이를 보존해야 하는 것이지 더 찾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한다.⁷³

4.3. 믿음의 규범(*regula fidei*)

구전 전승(케뤼그마)에 의한 ‘신앙의 규범’이나 ‘진리의 규범’은 성경이 모아지기 이전시기에 공동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영지주의 자들의 쏟아지는 문서들로부터 성경을 골라냈었고 해석의 초석이 되었다. 물론 성경이 모아진 이 후에는 그 역할을 성경에 넘겨주었다. 그리고 이는 공동체의 신앙고백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테르툴리아누스에게 있어서 신앙의 규범은 그의 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내용이 자구적으로 일치하지는 않는다.⁷⁴ 이 글에서는 XIII, 2-5까지에 실렸다.⁷⁵ 그리고 테르툴리아누스는 이것이 그리스도로부터 왔다고 주장한다. 이 신앙의 규범의 내용을 번역하여 보면,

온전히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모든 만물을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de nihilo*), 모든 것들의 시초에 보내어졌던 그의 말씀을 통하여, 만들어 내었던 세상의 조성자(*conditor mundi*) 이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 말씀이 그의 아들이라 불리었고,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족장들에 의하여 보였고, 예언자들 안에서 항상 들렸으며, 최후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부터 처녀(동정녀) 마리

⁷² Tertullianus, *De praescriptione haereticorum*, IX, 3-4, 195.

⁷³ Tertullianus, *De praescriptione haereticorum*, X, 9, 196.

⁷⁴ Tertullianus, *Adversus Praxean*, CChrSL 2, S. 1160, 3-16. 본인의 번역은, 조병하, 『교부들의 신학사상』, 58-59. 그 밖에도 Tertullianus, *De virginibus velandis*, I, 3, CChrSL 2, 1209.

⁷⁵ Tertullianus, *De praescriptione haereticorum*, XIII, 2-6, 197-98.

아에게로 옮겨졌으며, 그녀의 태에서 육체가 만들어졌고, 그녀로부터 낳아졌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만들어 내었다). 후에 그가 하늘나라의 새로운 법과 새로운 언약을 선포하였으며, 권능들을 행했고, 십자가에 못 박혔고, 삼 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였으며, 하늘로 올라가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그는 믿는 자들을 인도해야 하는 대행자(vicariam)로서 성령의 힘(vim)을 보냈고, 영생과 하늘의 언약들의 상급으로 거룩한 이들의 영접하기를 위하여, 그리고 육체의 복구(회복)와 함께 만들어졌던 양자의 부활을 통하여 꺼지지 않는 불로 불경건한 자들의 심판하기를 위하여 광명중에(cum claritate) 오게 될 것이다.

믿음은 규범 안에 놓여졌다. 그리고 그것은 율법의 준수로부터 율법과 구원을 갖는다. 그러나 실행은 지식욕 안에서 머물고, 경험의 열정으로부터 홀로 영광을 갖는다. 지식욕이 신앙에게, 명예가 구원에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⁷⁶

4.4. 성경에 대한 태도

이단들 역시 성경을 활용하여 그들의 주장을 정당화 하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의 글로부터가 아니라 다른 것을 토대로 신앙을 논한다.⁷⁷ 테르툴리아누스는 우리들의 믿음이 사도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⁷⁸ 성경에 대한 충도는 유익이 없다. 이들 이단들은 성경 중 몇몇 책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단들의 교리의 주장에 따라 “첨부(물)”과 생략을 통하여 성경을 변조하였다. 그들이 어느 정도 성경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상반되는 날조를 통하여 내용을 변형하였다.⁷⁹ 마르키온은 신약성경을 구약성경으로부터 나누었고, 발렌티누스는 다른 이로부터 유래한 것에 의하여 성경을 상이하게 설명하고 “정정하였다.” 이들은 “진리

⁷⁶ Tertullianus, *De praescriptione haereticorum*, XIV, 4-5, 198.

⁷⁷ Tertullianus, *De praescriptione haereticorum*, XIV, 14; XV, 2, 199.

⁷⁸ Tertullianus, *De praescriptione haereticorum*, XVI, 1, 199.

⁷⁹ Tertullianus, *De praescriptione haereticorum*, XVII, 1-2, 200.

의 위조[변조] 자들”(adulteros veritatis)이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그 밖에도 주의 길을 전도시키고 있는 유랑하는 자들로 Nigidius와 Hermogenes를 더 열거하고 있다.⁸⁰

테르툴리아누스에게 이단들은 성경뿐만 아니라 해석도 날조(adulteratio)하는 자들이다. 성경변조는 “제거를 통하여 혹은 첨부를 통하여 혹은 치환을 통하여”(detractio vel adiectione vel transmutatione)⁸¹ 이루어진다. 하나는 성경본문을 “손으로” 변조하였고 다른 하나는 그것의 의미를 그의 “해석을 통하여” 변조하였다. 즉, 마르키온은 “단호하게, 숨김없이” 성경을 베어내었다. 발렌티누스는 성경을 변조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는 성경 전체를 활용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가르침의 내용을 성경에 덧붙여 날조하였기 때문에 그가 더욱 많이 제거하고 더욱 많이 첨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테르툴리아누스는 이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발렌티누스는 성경의 개별 단어들에서 본래의 의미를 취했을 뿐만 아니라 존재하지 않았던 구성요소들도 첨가하였다.⁸²

테르툴리아누스는 이단들이 “성경의 변조와 해설들의 허위의 것들”(adulteria scripturarum et expositionum mendacia)이 오히려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제시되었다’고 주장함을 비판하고 있다.⁸³ 그리고 그는 성경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논한다. 성경은 믿음 자체가 속하는 자에게 속하는 것이다. 즉,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전승된 자에게 속하는 것이다. 또한 그는 “가르침(disciplina)과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진리가 있는 것이 분명한 곳 그곳에 성경과 해설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전통의 진리가 있을 것이다”⁸⁴라고 강조하고 있다.

⁸⁰ Tertullianus, *De praescriptione haereticorum*, XXX, 9-13, 211-12.

⁸¹ Tertullianus, *De praescriptione haereticorum*, XXXVIII, 4, 218.

⁸² Tertullianus, *De praescriptione haereticorum*, XXXVIII, 7-10, 219.

⁸³ Tertullianus, *De praescriptione haereticorum*, XVIII, 3, 201.

⁸⁴ Tertullianus, *De praescriptione haereticorum*, XIX, 3, 201.

4.5. 그리스도와 사도계승

테르툴리아누스는 진리의 근원과 출처로 그리스도 예수를 말한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 물으면서, 하나님의 아들, 인간이며 하나님, 신앙의 스승(*praeceptor*), 보상의 약속자(*mercedis repromissor*)로서 정리하고 있다.⁸⁵

그리스도로부터 진리가 사도들에게 위탁되었다. 그리고 테르툴리아누스는 사도적인 것 자체들이 사도적 교회들의 후손(후예, *suboles*)처럼 평가되어질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리고 테르툴리아누스는 “모든 종(족)이 필연적으로 그들의 기원(*originem*)에 일치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렇게 많고 그렇게 위대한 교회들의 하나인 교회는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있는 사도들로부터의 오직 그 최초의/원시적인 교회이다. 그렇게 모든 것이 최초의 교회와 관련하여 있고, 모든 것이 사도의 교회와 관련하여 있다. 모든 것이 하나인 동안에!”⁸⁶라고 정의한다. 그는 계속하여 이러한 권리가 “신비 그 동일한 것 자체의 하나의 전승”(*eiusdem sacramenti*⁸⁷ *una traditio*) 보다 그 어떤 “다른 이성”(*alia ratio*)이 주도하지 않는다고 말한다.⁸⁸ 테르툴리아누스는 그의 글 뒤 부분에서도 다시 권위가 하나의 교회로부터 유래하다고 강조한다. 이런 관점에서 번역자 디트리히 슐라이에르의 번역과 설명은 수정되어야 한다. 테르툴리아누스가 아가야 교회, 고린도교회, 마케도냐교회, 빌립보교회, 에베소교회와 로마교회를 언급한 후에, “*unde nobis quoque auctoritas praesto est*”(그곳으로부터 우리들의 권위가 있다)를 번역하면서 권위가 다른 교회가 아닌 로마교회로부터 나온다고 증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⁸⁹ 그러나 테르툴리아누스의 주장이 로마 교회에 국한하

⁸⁵ Tertullianus, *De praescriptione haereticorum*, XX, 1, 201.

⁸⁶ Tertullianus, *De praescriptione haereticorum*, XX, 7-8, 202. “Omne genus ad originem suam censeatur necesse est. Itaque tot ac tantae ecclesiae una est illa ab apostolis prima ex qua omnes. Sic omnes primae et omnes apostolicae, dum una omnes.”

⁸⁷ 여기에서 이 단어는 구원의 필연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⁸⁸ Tertullianus, *De praescriptione haereticorum*, XX, 9, 202.

⁸⁹ Tertullianus, *De praescriptione haereticorum*=Vom prinzipiellen Einspruch gegen die Häretiker,

지 않고 위의 모든 교회의 기원인 오직 하나인 최초의 교회를 들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3절에서 나타난 2절의 내용을 받고 있는 “ista ecclesia”(이 교회) 역시 로마 교회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근원인 하나의 교회 즉, 최초의 교회를 의미한다. 그 교회는 사도요한이 “끓는 기름에 담겼던 자로서 그가 전혀 아무 손상을 입지 않은 후에 섬으로 유배당하였던 곳”이다.⁹⁰

주 그리스도 예수가 제자들을 파송하였을 때 이들 외에 누구에도 그의 계시를 주지 않았다. 그 시초의 사도들의 교회들과 신앙의 기원들과 일치하는 모든 가르침(doctrina)이 진리에 합당한 것이다. 이것은 “교회들이 사도들로부터, 사도들이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것”이다.⁹¹

우리들은 보증인들(auctores)로서 주의 사도들을 갖고, 그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던 가르침(disciplina)을 신실하게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었다. 이에서 다른 것을 하늘로부터 온 천사들이라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⁹² 이제 우리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이래로 지식욕(curiositas)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복음 이래로 찾아내는 일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들이 믿는다면 이제 더 이상 믿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을 믿는 것 이외에 결코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⁹³

결 론

테르툴리아누스가 아덴과 예루살렘을 말할 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연구

305. 이어지는 3절.

⁹⁰ 디트리히 슐라이에르가 앞의 내용을 로마교회와 결부시키니 사도요한이 ‘로마에서 끓는 기름 가마에 담기는 일이 일어났다’고 해석하게 된다. 그러나 본문내용은 그것이 아니다.

⁹¹ Tertullianus, *De praescriptione haereticorum*, XXI, 4, 202-3.

⁹² Tertullianus, *De praescriptione haereticorum*, VI, 4-5, 191.

⁹³ Tertullianus, *De praescriptione haereticorum*, VII, 12-13, 193.

하였다. 먼저 오늘의 화두가 되고 있는 테르툴리아누스로부터 유래했다고 하는 두 가지 중요요소를 살펴본 주제의 역사적인 의의를 살폈다. 그리고 아테과 예루살렘이라는 테마를 위하여 203년 그가 쓴 글 『이단들의 항변에 대하여』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아테이나 예루살렘이나의 질문은 ‘이성이나 신앙이나’의 문제나 ‘학문이나 계시나’보다 오히려 ‘철학이나 계시나’가 적합해 보인다. 당시 아테의 플라톤 아카데미(기원전 약 385~기원후 529)는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회의주의적 이었다. 그로 인하여 후에 결국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에 의하여 폐쇄되었다. 이러한 철학 사조를 이용하여 복음을 왜곡시킨 이단들의 원천으로써 철학을 비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테르툴리아누스가 중기플라톤적이거나 스토아적인 사상들로부터 영향 받은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철학이 계시의 예비지식(초보교육, 입문서, 초등학문)으로 역할을 하며, 공동의 의미와 적합한 주장들로서 기여하고, 호교론적 주장과 계시의 진리의 해석을 위하여 봉사한다.⁹⁴

테르툴리아누스의 논지는 당시 중심 이단들(발렌티누스, 마르키온, 아펠레스, 헤르모게네스 등, 물론 몬타누스는 빠져 있다.)이 제기하는 ‘사도들이 모든 것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이나 ‘그들이 모든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모든 이들에게 전승하지 않았다’는 두 가지 항변에 대하여 답하고 있다.

테르툴리아누스에게서 지식욕이 철학으로부터 나누어질 수 없다고 보았다. 철학의 ‘세상지혜’와 계시의 구원의 진리는 아테과 예루살렘, 아카데미와 교회, 이단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처럼 대립한다.

진정한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에게서 사도들에게로, 사도들에게서 이방인들(그리스도인들)에게로 전승되었기 때문에 이 진리를 발견할 때까지만 찾는 것(지식욕)이 필요하지 찾았을 때에는 즉시 믿어야 하고 믿은 다음에는 찾는 것은 필요 없고 찾은 진리를

⁹⁴ Dietrich Schleyer, “Einleitung,” zu Tertullianus, *De paescriptione haereticorum*=*Vom prinzipiellen Einspruch gegen die Häretiker* (lateinisch-deutsch), Fontes Christiani, Bd. 42 (Turnhout: Brepols Publishers, 2002), 71-86.

보존하는 일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⁹⁵

⁹⁵ 비교·보존하는 역할을 넘어서 구원의 진리를 진리보존의 테두리 안에서 찾아야 할 것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은 11세기부터이다. 이성이 다양한 전승을 비판적으로 조명하게 된 것이다. 이는 수용성과 생산성이 맞물리게 되면서 원자료를 선택하고 강조하는 필요성이 생겨났다. 페테르 아벨라드(Peter Abaelard)는 모순을 극복하고 남아 있는 진실성을 찾아내기 위하여 교회의 진리성을 항상 찾고 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참고문헌

1차 자료

Das Ägypterevangelium. In *Bibel der Häretiker: Die gnostischen Schriften aus Nag Hammadi.* einl. u. übers., komm. v. Gerd Lüdemann u. Martina Janßen. Stuttgart: Radius, 1997, 232-46.

Tertullianus. *Adversus Praxean.* CChrSL 2, 1159-1205.

_____. *Adversus Valentinianos.* IV, 1. CChrSL 2, 753-78.

_____. *De carne Christi.* In CChrSL 2, 873-917.

_____. *De paescriptione haereticorum*=*Die Prozesseinreden gegen die Häretiker.* übers. u. eingel. v. K. A. Heinrich Kellner. In *Bibliothek der Kirchenväter.* 1. Reihe Bd. 24. 1915.

_____. *De paescriptione haereticorum*=*Vom prinzipiellen Einspruch gegen die Häretiker* (lateinisch-deutsch). übers. u. eingel. v. Dietrich Schleyer. In *Fontes Christiani.* Bd. 42. Turnhout: Brepols Publishers, 2002.

_____. *De praescriptione haereticorum.* CChrSL 1, 187-224.

_____. *De virginibus velandis.* CChrSL 2, 1209-26.

2차 자료

Aland, Barbara. Art. "Markion." In *LThK* 6: 1392-93.

Barnes, Timothy David. *Tertullian: A Historical and Literary Study.* Oxford: Clarendon Press, 1971 (rep. 2005).

Bühler, Pierre. "Tertullian: The Teacher of the Credo quia absurdum." In *Kierkegaard and the Patristic and Medieval Traditions.* (Ed.) Jon Stewart. In *Kierkegaard Research: Sources, Reception and Resource.* Vol. 4. Hampshire: Ashgate,

2008, 131-42.

Dunn, Geoffrey D. "Tertullian's Scriptural Exegesis in *De praescriptione haereticorum*." In *Journal of Early Christian Studies* 14/2 (2006): 141-55.

_____. *Tertullian*. in *The Early Church Fathers*. (Ed.) Carol Harrison. London &: Routledge, 2004 (rep. 2008).

Elliger, Winfried. *Karthago: Stadt der Punier, Römer, Christen*. Stuttgart: W. Kohlhammer, 1990.

Gessel, Wilhelm M. Art. "Karthago." In *LThK* 5: 1272-75.

Greschat, Katharina. "Neue Perspektiven auf einen alten Polemiker? Der postkoloniale und allegorisierende Tertullian." In *ThR* 74 (2009): 480-85.

Osborn, E. *Tertullian, First Theologian of the Wes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rep. 1999).

Ritter, Adolf Martin. "Arius redivivus?: Ein Jahrzwölft Arianismusforschung." *ThR* 55 (1990): 153-87.

Schleyer, Dietrich. "Einleitung," zu Tertullianus' *De paescriptione haereticorum*=*Vom prinzipiellen Einspruch gegen die Häretiker*(lateinisch-deutsch). In *Fontes Christiani*. Bd. 42. Turnhout: Brepols Publishers, 2002, 10-227.

Schulz-Flügel, E. Art. "Tertullian." In *Lexikon der Antiken Christlichen Literatur*. 3. Aufl. hrg. v. Siegm. Döpp u. Wilhelm Geerlings. Freiburg u. a. m.: Herder, 2002, 668-72.

_____. "Tertullian." In *Theologen der Christlichen Antike*. hrg v. Wilhelm Geerlings.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2002, 13-32.

Schweiger, Georg. Art. "Eleutherus." In *LThK* 3: 586.

리터, 아돌프 마르틴. 『고대그리스도교의 역사』. 조병하 역. 서울: 기독교문사, 2007(수정보완판).

조병하. 『교부들의 신학사상』. 서울: 그리심, 2005 (2009 2쇄).

Zusammenfassung

Was ist Athen und Jerusalem? Was Akademie und die Kirche?: In der Schrift bei Tertullianus *De praescriptione haereticorum*!

Cho, Byoung-Ha

Man darf nicht das Verhältnis zwischen dem Evangelium und dem Circumstance in dem Dualismus zu verstehen. Wir sehen das Verhältnis zwischen dem Evangelium und dem Gesetz in dem Verhältnis zwischen Christentum und Judentum, und das Verhältnis zwischen dem Evangelium und dem Circumstance in dem Verhältnis zwischen Christentum und “Greco-Roman” Kultur.

Das Thema “Athen und Jerusalem” bei Tertullianus *de praescriptione haereticorum* behandelt das Verhältnis zwischen der apostolischen Sukzession des Evangeliums und der Vermischung des Evangeliums mit der Philosophie. Tertullianus bringt die Prozesseinreden gegen die Häretiker vor. Die Häretiker erhob die zwei Einsprüche; 1) non omnia apostolos scisse, 2) omnia quidem apostolos scisse sed non omnia omnibus tradidisse.

Curiositas(die Wißbegierde) bei Tertullianus wird von der Philosophie eingeteilt. Die weltliche Weisheit und Heilswahrheit werden auseinander distanziert, wie Athen und Jerusalem, die Häretiker und die Christen. Weil die wahre Wahrheit von God zu Christus, von Christus zu Aposteln, von den Aposteln zu den Heiden(Christen) geliefert wurde. Tertullianus sage deutlich, “man muß suchen, bis man findet, und glauben, so bald man gefunden hat, und nichts weiter tun als bewahren, was man im

Glauben angenommen hat.”(übersetzt v. Dietrich Schleyer)

Key-Words : Evangelium, Circumstances, Jerusalem, Athen, Regula Fidei, Valentinus, Marcion, Apelles, Dispositio, Curiositas, Apostolische Sukzession